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2017
No.64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7. 4. 30.

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피해율 3년 전 대비 큰 폭 감소

부부폭력 피해율 3년 전에 비해 여성 17.7%p, 남성 18.7%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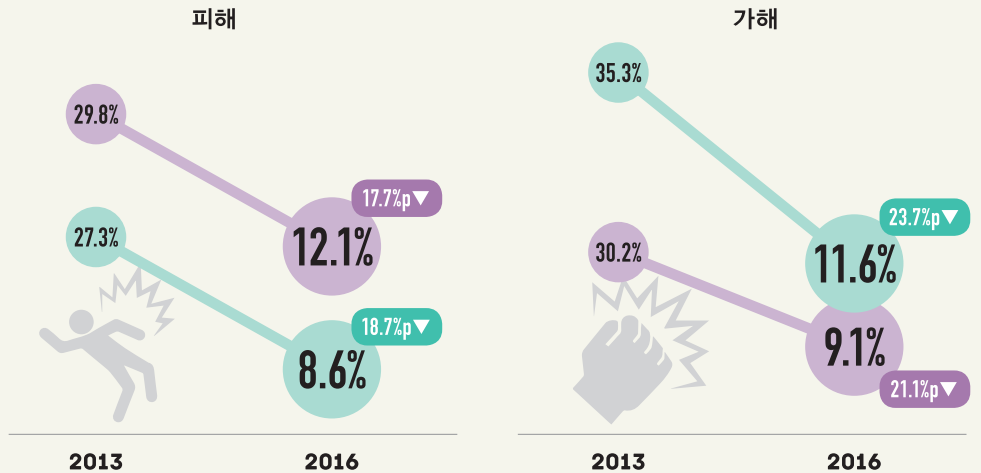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자녀·노인 학대 등 전반에서 폭력률은 감소했다.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로 2013년(29.8%)과 비교해 17.7%p 하락했으며, 남성의 폭력 피해율은 8.6%로 3년 전(27.3%)에 비해 18.7%p 하락했다. 여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9.1%, 남성의 가해율은 11.6%로 폭력 가해율 또한 2013년(여성 30.2%, 남성 35.3%)과 비교해 감소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학대 비율은 27.6%로 2013년(46.1%) 대비 18.5%p 하락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노인학대 비율을 보면 2013년 10.3%에서 2016년 7.3%로 감소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가정폭력(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 등) 경험, 폭력에 대한 대응, 주위 도움요청 정도,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법·제도 인지여부,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6,000명(여성 4,000명,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대면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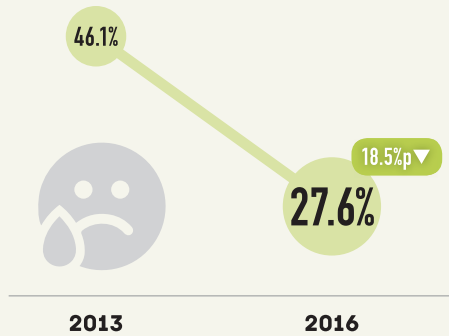
부부폭력률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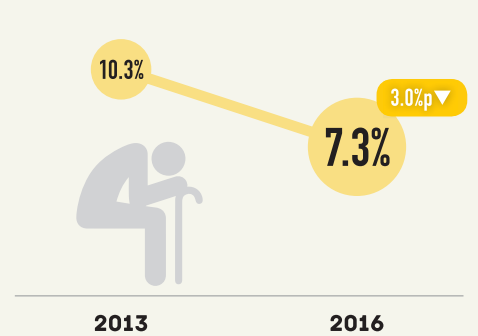
*부부폭력률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녀학대율



*자녀학대율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행사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노인학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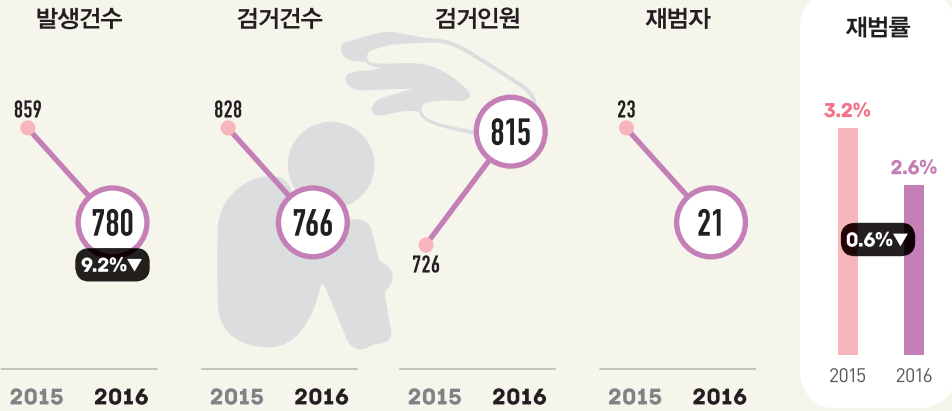


*노인학대율은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가족원(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으로부터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대전시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대전 성폭력 발생건수
전년 대비 9.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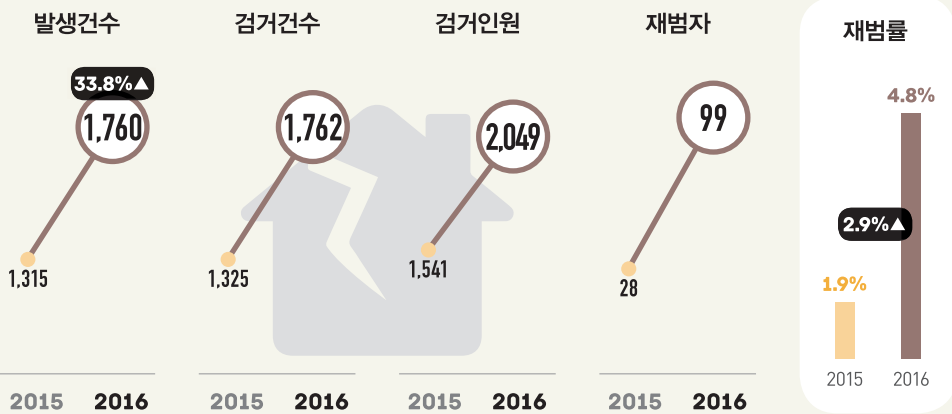
*각 연도 12. 31. 기준 *재범률: 재범자÷검거인원 *출처: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16년 대전시 성폭력 발생건수는 780건으로 2015년 859건에 비해 79건(9.2%↓) 감소했으며, 2016년 검거건수(766건)도 전년(828건) 대비 감소했다. 2016년 성폭력 검거인원은 815명, 재범자 21명으로 재범률은 2.6%로 나타났다. 2015년 검거인원 726명, 재범자 23명, 재범률 3.2%와 비교해 보면 검거인원은 늘었으며, 재범자는 줄었고 재범률은 소폭 하락(0.6%p↓)했다.

대전시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대전 가정폭력 발생건수
전년 대비 3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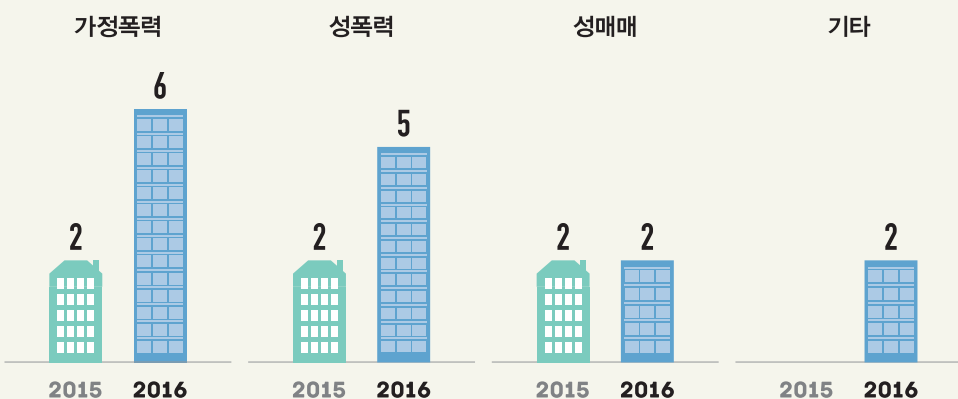
*각 연도 12. 31. 기준 *재범률: 재범자÷검거인원 *출처: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시 2016년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1,760건으로 전년(1,315건) 대비 445건(33.8%↑) 증가했고, 2016년 검거건수도 1,762건으로 2015년 1,325건에 비해 증가했다. 가정폭력 검거인원과 재범자를 살펴보면, 검거인원(1,541명→2,049명, 508명↑)과 재범자(28명→99명, 71명↑) 모두 증가했으며, 2016년 가정폭력 재범률은 4.8%로 2015년 1.9%와 비교해 2.9%p 상승했다.

대전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시설 및 상담소 현황

생활시설 이용시설 단위: 개소

대전 폭력 피해자 생활
및 이용시설 21개소



*2017. 1. 1. 기준 *출처: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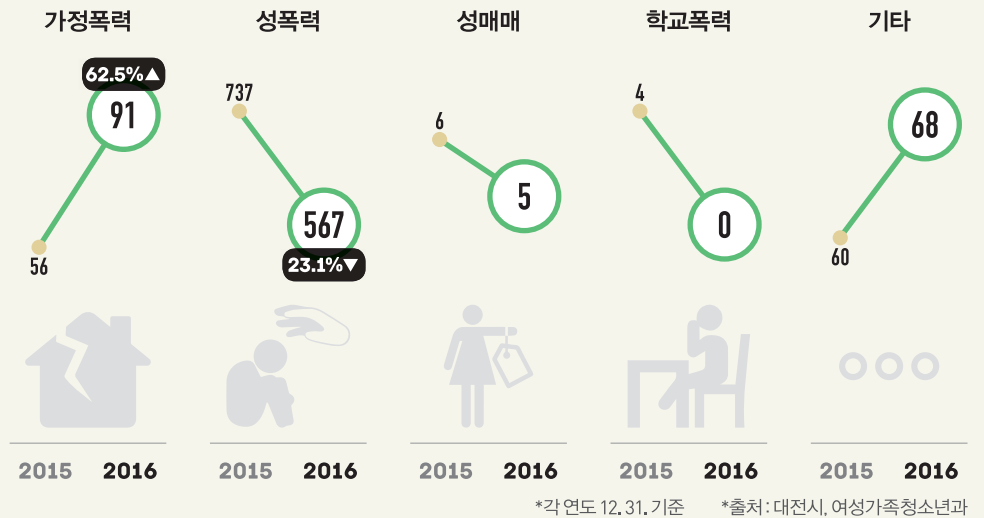
2017년 1월 1일 기준 대전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및 상담소는 총 21개소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생활시설은 2곳, 이용시설 6곳 등 총 8개소로 가장 많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활시설은 2곳, 이용시설 5곳으로 총 7개소가 있다. 성매매 피해자 총 4개소(생활 시설 2곳, 이용시설 2곳)가 있으며, 이외에 기타 이용시설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대전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접수건수 전년 대비 62.5% 증가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인 대전해바라기센터의 폭력 피해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91건으로 2015년 56건에 비해 35건(62.5%↑) 증가했으며, 성폭력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567건으로 전년(737건) 대비 170건(23.1%↓) 감소했다. 2016년 성매매 피해 접수 건수는 5건이며,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없었다.

대전해바라기센터 폭력 피해자 접수 현황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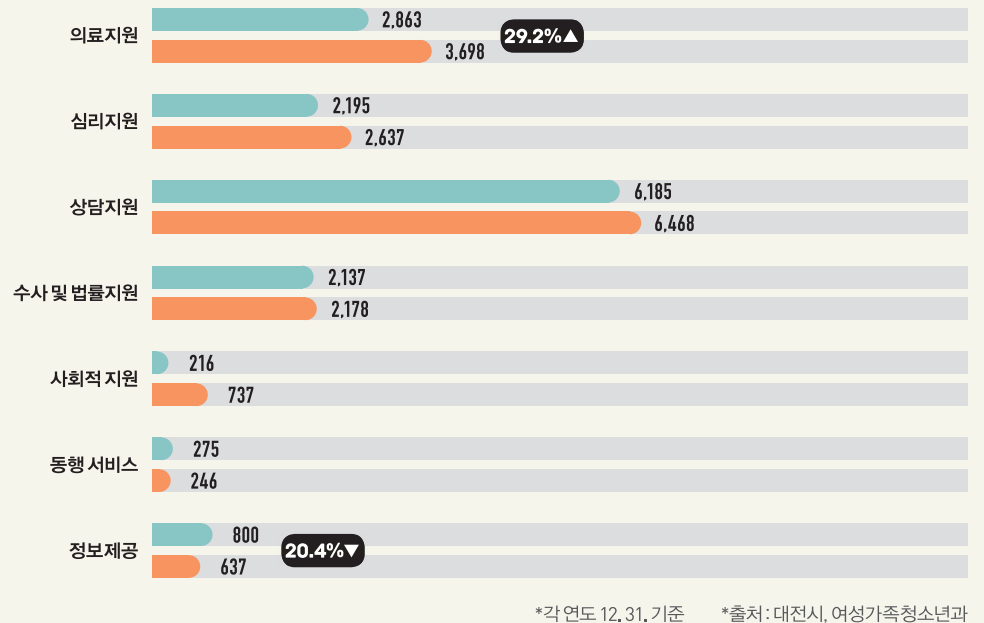


대전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의료지원 늘고, 정보제공 줄어

2016년 대전해바라기센터의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상담지원이 6,468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의료지원(3,698건), 심리지원(2,637건), 수사 및 법률지원(2,178건), 사회적 지원(737건), 정보제공(637건) 순이었으며, 동행서비스가 246건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과 비교해 의료지원은 29.2%(835건↑)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정보제공은 2015년 전년(800건) 대비 20.4%(163건↓) 감소했다.

대전해바라기센터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 2015 ● 2016 단위:건



청춘은 사랑하고 싶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저자 천주희와 함께 대전지역 청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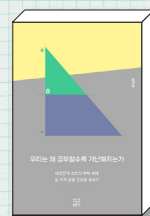
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14시

장소 | 배재대학교 내 북카페 '고트빈' (도서관 앞)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 세대, 빚 지지 않을 권리를 말하다



저자 | 천주희
1986년 출생.
성공회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문화학과에서 문화학과 여성학을 공부했다.